

김태균 전남도의회의회장, 민주당 1급 포상

‘청년특화구역’ 광역 단위 첫 제도화··지역소멸 대응 모델 평가
“향후 국가 차원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광양3)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 위원회가 주최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 조례로 선정돼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았다.

수상 조례는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로,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

하기 위해 ‘청년특화구역’을 광역 단위에서 처음으로 제도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개별 사업을 넘어, 광역 차원에서 정책 방향과 지원 체계를 구조화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평가다.

해당 조례는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

점을 맞췄다.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형과 농촌형 청년특화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별로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청년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감소 대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 정책을 단편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간·산업·주거를 결합한 종합 모델로 설계했다는 점, 지역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광역의회 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균 의장은 “전남은 전국에서도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특히 청년 인구 감소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며 “청년이 떠나지 않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역소멸은 피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조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특화구역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국가 차원의 제도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농기원 이보배 연구사, 농업기술대상 ‘연구대상’

전남 특화작목 ‘유자’ 상품화··농가 경쟁력 강화 ‘한 몫’

유자 착즙 전용 품종·업사이클링 기술로 수출 경쟁력 키워

전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이보배 농업연구사(사진)가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5년 농촌진흥사업 농업기술대상’ 평가에서 연구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농업 연구자 가운데 연구 성과의 완성도와 산업적 파급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다.

농업기술대상은 농업과학 기술개발 성과를 대상으로 과학·학술적 가치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농업·농촌 발전 기여도를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농업 분야 최고 권위의 포상이다.

올해는 교수를 포함한 3명만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전국 약 2600여명의 농업연구자 가운데 전남 소속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보배 연구사는 최근 유자 착즙액 수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 주목해,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착즙 전용 유자 품종 선발과 보급에 기여해 왔다. 단 순 품종 연구에 그치지 않고, 수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원료 체계 구축으로 전남 유자 산업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가공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 유자청



의 신선도를 연장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업사이클링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식품

과 향장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실용화했다.이를 통해 전남 유자를 중심으로 한 가공·수출 품목 다변화에도 기여했다.이같은 연구 성과는 수치로도 입증됐다.

이 연구사는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 3건, 기술이전 12건, 논문 6편, 제품 개발 6건, 사업화 2건을 달성하며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과 산업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 특화 작목인 유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이보배 연구사는 “현장에서 축적해 온 연구 결과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는 점을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서구, 특별사법경찰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광주 서구가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수사 역량 강화 노력을 인정받았다.

16일 서구에 따르면 광주시가 주관한 ‘2025년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업무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3년 연속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지역 5개 자치

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특별사법경찰 운영 실적 △수사역량 강화 노력 △수사 기여도 등 4개 부문, 9개 항목에 대해 심사에 최종 결정됐다. 서구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식품위생·환경보호·청소년 보호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선제적인 기획 단속을 실시하며 84%의 높은 기소율을 기록하는 등 엄정하고 정확한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서구는 광주시를 비롯해 서부경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



관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위법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관계기관 합동단속, 수사 실무교육 이수 확대 등을 통해 수사 인프라를 강화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민철 안전도시국장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 불법 행위에 타협 없이 엄정히 대응해 온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통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착한도시 서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i1404@gwangnam.co.kr

박현석 광산구의원,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기후위기 대응·생활환경 개선·안전 정책 선도 공로 인정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여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분랑동)이 지난 12일 서울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 명례관에서 열린 ‘2025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하는 ‘2025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은 전국의 250여 개 지방의회 의원 350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에너지·안전 분야의 친환경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의정활동의 성실성, 성숙도, 지속가능성, 실현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26명이 선정됐다.

박 의원은 제8·9대 광산구의회 재선 의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 재난·안전 정책을 핵심 의제로 삼은

의정활동과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푸른길 조성 연구회’를 통해 광산형 친환경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및 정부의 실효적 대책 마련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 △자원화시설 주변 주민지원 조례 제정 및 지역민 삶의 질 향상 △장목습지 생태환경 보전과 장목교 설계 개선 촉구 등 지역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녹색도시 비전 제시를 통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끈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박현석 의원은 “이번 수상은 기후위기와 생활환경,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성원해 주신 광산구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광산구가 미래세대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



박현석 광산구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명례관에서 열린 ‘2025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현장을 살피고 좋은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필수 기술 ‘반도체’로 어떤 세상 만들 수 있을까

이일민 교수 초청 ‘과학스쿨’ 17일 GIST 오름관

국립광주과학관은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공동으로 17일 오후 7시 지스트(GIST) 오름관에서 2025년 마지막이자 여섯 번째 과학스쿨을 갖는다.

이번 강연은 ‘반도체로 만드는 세상’을 주제로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이일민 교수(사진)를 초청해 진행된다. 이 교수는 일상생활 속 필수 기술이 된 반도체의 원리와 제작 과정, 미래 기술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어린이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이일민 교수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학·석·박사를 취득하고, 일본 NTT 및 미국 Texas A&M University에서 포닥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2023년부터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으



로, 반도체 회로 설계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행사 참여시 다량의 기념품을 추천 및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5회 이상 참여하여 ‘출석왕 이벤트’를 달성한 참가자들에게는 특별 기념품과 국립광주과학관 연구원에게도 증정된다. 최원진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실 연구원은 “이번 강연을 통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반도체의 원리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

게시판

알림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상담.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문의 062-223-1357.

모집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부음** △박복규씨 별세. 박필순(광주시의원)씨 부친상=광주 만평장례식장 101호, 발인 17일 오전 6시 30분. 장지 국립임실호국. 문의 062-611-0000.

온세 (음력 10월 28일)

48년생 마음 들뜨지 말고 참는 게 상책이다
60년생 슬픈 소식 들려 올 것
72년생 따스한 날이 계속되리라는 기대 위험
84년생 절저대로 투명하게 처리함이 나올 것
96년생 급전 지출 원인 없앨 것
51년생 기본적인 것을 제일 중요해야 하는 날
63년생 경사스러운 일이 보인다
75년생 정직한 마음을 지키면 도움을 받는다
87년생 부탁해도 거절 못한다
99년생 이성 문제 마음만 앞서서는 의미 없다
54년생 기회가 찾아온다 재빨리 포착하라
66년생 재물과 문서에 줄거움이 있다
78년생 틀림없이 직장에서 실연 우려된다
90년생 하나 구하려는데 둘 얻으니 기쁨
57년생 건강에 신경착으로 유익할 필요있다
69년생 틀을 벗어나지 않음이 무난하다
81년생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자
93년생 지금 하는 학업 다시 생각

49년생 동서로 분주하지만 쓸데없는 일
61년생 자녀 취업에 집착 말고 건강에 신경써라
73년생 작은 일에 만족해야 몸 건강 좋을 것
85년생 말을 무시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97년생 확실하게 알게 된다
52년생 갈등 문제 논하니 성과가 좋은 날
64년생 음쑤달쑤 못하게 처치에 놓이는 수 있다
76년생 시대 사람이 찾아오거나 소식이 온다
88년생 화의 근원이 숨어 있다
55년생 모임의 결성하면 지인이 따를 것
67년생 함부로 말하게 되면 좋지 않다
79년생 거래 관계 미리 계획을 세울 것
91년생 인연이 있는 날이니 행운 함께 하는 날
58년생 내버려 두면 큰일난다
70년생 다들 일이 있더라도 참는 게 상책
82년생 전자도박 유혹에 끌리지 마라
94년생 질투는 자신의 병 만든다

50년생 도로에 망신수 있으니 대중교통 이용
62년생 기쁜 일이 많이 생겨 날 듯
74년생 지인말 믿고 행동하면 실패
86년생 미봉책은 두 번 일하게 한다
98년생 주변 환경이 갑자기 좋아질 수 있다
53년생 대화로 아랫사람의 경계를 풀여라
65년생 대접 잘해주고 뭇 때는 일 생기니 조심
77년생 급전 지출에 신경써라
89년생 진행하고 있는 사업체 인허가 난다
56년생 철저하게 관리하니 아랫사람이 존경
68년생 오래 가던 화근되니 그때그때 풀자
80년생 겉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다
92년생 뒷사람과 협동심 발휘하니 일사천리
59년생 거래가 성공적인 하루가 될 것
71년생 재수 대길이라 운까지 생기게 된다
83년생 잊혀지지 않는 일들 속에서 해방
95년생 지인덕에 소계팅 있는 날